

《대한매일신보》 경제소재 시평가사에 반영된 자본주의 정신과 그 윤리*

- 베버의 방법론적 논증을 바탕으로 하여 -

강 동 원**

차 례

- | | |
|---|--------------------------------|
| I. 서론 | 2. 불온건한 소비활동경계에 내재된 |
| II. 근대전환기 경제담론을 구성하는
‘베버’적 가치 | ‘금욕주의’정신 |
| III. 경제소재가사에 반영된 프로테스
탄티즘의 윤리에 따른 자본주의
정신 | 3. 근면, 노동에의 지향을 계도하는
직업소명의식 |
| 1. 분배의 모순적 대안으로서의 경
제적 합리주의 | IV. 인식전환이 갖는 가치와 의의 및
결론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소급된 개화기 시가문학, 특히 시평가사의 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그간 다방면에 걸친 질적·양적인 논의와 성과 속에서도 미처

* 본 논문은 2014년 한국문학회 춘계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일부 수정하여 작성한 논문임.

** 고려대학교

탐색되지 못한 것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시도이다. 즉 종래에 왕성한 논의가 있어왔지만 보다 본질적인 사상수용의 천착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 그 문제의식화와 자연 추종되는 검토의 작업이 미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해명을 위해 방법론적 모색을 가하여 그 반영의 양상 등을 검증적으로 살펴나가며 우리 근대전환기의 여러 경제적 난관과 전환적 국면 속에서 발생하고 적용될 수 있었던 경제담론의 실재, 즉 자본주의 정신의 맹아와 모태적 윤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이 처한 개화기의 근대적 위기는 필연적으로 일국의 경제제반문제와 결부되어 상당한 타격을 가져왔다. 따라서 기독교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신보》논설은 근대전환기 경제영역에서 속출한 제반문제와 관련하여 적극적 모색과 대응차원에서의 경제담론을 대체·구성해 나간다.

그러한 일환으로 당시 불합리한 분배구조의 모순, 과소비적 사치를 통한 불건전한 소비풍조 및 노동력 공급 미비에 대한 문제들을 베버의 이해 속에서 살펴나갔다. 그것은 소득수탈기획으로서의 이윤추구에 집착된 노동착취와 폭리취득을 위한 재분배의 원천봉쇄 등으로 자본주의 정신의 맹아인 합리적 경제태도의 부재를 입증함과 이에 대한 고발은 동시에 근대산업경영정신에 기반한 합리적 경제의식의 반영 및 반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근대전환기에 발생한 여러 양상의 사치행태에 대한 의식화된 고발은 금욕적 태도에 관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경제영역문제에 본질적으로 수용되면서 금욕과 절제로의 전환을 당부하는 것과 상보된다. 그리고 노동 가치에 대한 인식전환 및 참여에의 절실한 요청은 전환기에 직면한 위기적 국가경제상황 속에서 노동 지향을 계도함과 천직으로서의 현세적 소명의식의 한 반영인 것이다.

주제어 : 근대전환기, 시평가사, 막스 베버, 자본주의 정신, 프로테스탄티

즘 윤리, 경제적 합리주의, 금욕사상, 직업소명의식

I. 서론

근래로부터 소급된 개화기 문학, 특히 시가장르와 관련한 논의와 연구는 비교적 다양한 관점을 통해 진행되고 있고¹⁾ 이는 고무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형식·형태론적인 측면에 치중함에 지남이 없거나 주제적인 면에서는 개화와 우국아래 집착된 문명수용 내지 자주독립에 대한 계도정도에 국한됨도 현실이다. 다시 말해 보다 본질적인 사상수용의 천착에 대한 구체적인 규명과 논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실정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저에는 기존 질서가 갖는 구조적 모순의 타파에 대한 책무, 서구충격이라는 시류에 대한 대응, 거기에 강요된 타율적 변화라는 과중한 부담이 작용했고, 따라서 그러한 국한적인 범주의 논의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와 같은 한계를 인식전환의 계기로 삼아 그간 살피지 못했던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사상적 맥락에서 당시 시가문학에 반영된 사상 혹은 가치관을 주도함과 근간을 이루는 구성체에 집중할 때 하나의 특별한 정신이 발견된다. 그것은 본 글이 집중하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이에 따른 자본주의 정신²⁾이며 아울러 그 관계적 고

1) 형식적 측면에서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 고은지, 「계몽가사의 문학적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 양식적 원리와 표현기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김영철, 「개화기 시가에 나타난 알레고리의 미학」, 『한국시학연구』35, 2012, 주제적인 측면으로는 이형대, 「근대계몽기 시가장르의 존재양상과 근대적 대응 : 근대계몽기 시가사 인식의 구도와 관련하여」, 『시조학논총』32, 2010, 고미숙, 「계몽시가를 통해 본 근대적 시간표상의 몇 국면 : 「학교가」와 「열(烈)가집(歌集)」(박재수 편)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22, 2003. 등이 있다.

2) 막스 베버가 과학적인 인과성(causality)에 기초한 분석을 통해 발표한 이론으로 1905년 그의 논문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the Protestant Ethics

찰을 통해 담당 텍스트에 반영된 여러 양상들을 논증·규명해 볼 것이다. 그리고 담당 자료는 《대한매일신보》(이하 《신보》)에 수록된 문학작품으로, 주지하다시피 개화기 당시 기독교(개신교)가 다양한 부문에 끼쳤던 많은 영향에 관해서는 자명하다. 즉 사회·문화 전반과 당대 개화의식까지도 주도했던 기독교 사상은 문학영역에도 각별한 의미를 부여³⁾한다. 그것은 일대 한국문학사에 있어 새로운 전개양상과 더불어 전기를 맞게 해 준 것이다. 또한 이로부터 창작·발행된 작품들을 게재할 매체나 저널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개설되었는데, 특히 기독교 수용에 있어 타 신문에 비해 적극적이었고 후에 기독교구국론⁴⁾까지 주장했던 《대한매일신보》와 그 독자성은 본 논문의 방법론으로서 기능할 요소에 대한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다.

요컨대 이상에서의 논의의 온전한 귀결을 위해 방법론적 논증은 당위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막스 베버가 그의 두 편의 논문을 통해 밝힌 윤리관과 동선에 놓인 자본주의 정신 및 그 맹아의 발견은 본 논문의 문제의식을 해명하는데 일정이상의 공헌을 해 낼 것이다. 이를 위해 베버의

and the Spirit of Capitalism)에서 프로테스탄티즘과 경제발전, 즉 자본주의 정신과의 관계를 규명·분석하고 있다. Max Weber, *The Protestant Ethics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translated by T. Parson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8). 이는 켈빈주의를 토대로 하는 금욕주의적 개신교 윤리가 근대 자본주의를 발생시킨 동기가 되었다는 기본 주제하에 그 종교적인 관념과 윤리가 경제영역에 행사하는 영향력에 관해 살피되 그 인과성에 중점을 두어 논증적으로 분석하였다.

- 3) 오랜 세월 서구사회정신의 중심이었던, 그리고 현재도 여전히 기독교사상은 근대 전환기 개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는데, 특히 그러한 영향력은 당시의 문학작품 속에 고스란히 주제의식화 되어 창작·보급되었다.
- 4)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31일자 논설에서 기독교는 감화하는 힘이 다른 종교보다 월등할 뿐만 아니라 그 주의를 널리 사랑함이요 그 제도는 평등이요 그 방법은 매년 수백만 환의 돈을 허비하여 새 지식 새 문명을 겸하여 수입하기 때문에 한국의 국가 민족에 무엇보다 이익이 된다면서 ‘대한 이천만 인종의 한 가지 살 길’은 기독교를 믿는 데 있다는 기독교구국론을 주장했다.” 강준만, 『한국 근대사 산책』4, 인물과 사상사, 2007, 366면.

핵심논리인 경제적 합리주의, 세상적 금욕주의 그리고 직업소명의식⁵⁾에 대한 생각을 토대로 개화기 시가장르, 특히 가사를 중심으로 어떻게 구현되었고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앞서 밝혔듯이 대상 텍스트는 《대한매일신보》에 게재된 작품으로 삼되 이는 방법론적 논증을 위한 근거가 되는 프로테스탄트적 경향이 매우 강한 배경만을 고려함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어느 신문매체보다 한국의 자강,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아울러 당대 시사평론사에 관한 연구를 주도⁶⁾하면서 그러한 내용이 담긴 논설을 효과적으로 송신하였다는 점, 그리고 이를 위해 가사 형식을 빌려 창작한 시평가사를 게재했다는 점이 선별에 핵심동인이 되었다. 또한 수록된 시평가사 가운데 경제소제가사⁷⁾를 본격적인 연구텍스트로 다루어 단순한 사상적 고찰을 넘어선 작품의 근간이 되는 윤리관 및 연계되는 자본주의 정신을 추출·발

- 5)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지닌 금전 추구에의 욕망에 윤리적 통제가 가해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자본주의와는 다르다는 것이 특징이다. 베버는 자본주의 정신의 특질을 부를 창출해 내는 어떠한 '힘'에 있다고 본다. 즉 물질이 아닌 정신에 있으며, 그것을 견인하는 윤리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베버가 말하는 두 가지 핵심은 자본주의 정신의 실체와 그 원천의 탐색으로 귀착되는데, 이에서 추출된 기업적 자본주의 정신을 다음과 같이 **경제적 합리주의, 세상적 금욕주의 그리고 직업의 소명의식**의 세 가지 원리로 구분한다. 이러한 핵심개념에 대한 구체적 특징 및 양상의 전모는 2장에서 상세히 밝히도록 한다. 강휘원·홍성국,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 현대적 관점에서의 재조명』, 『사회과학연구』8, 2004, 122-123면.
- 6) 개화기 가사의 전체적 맥락은 《대한매일신보》의 가사로 수렴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수량 면에서 타 장르를 압도함은 물론이고, 질적인 면 역시 근대전환기 문학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보고가 되기 때문이다. 고미숙, 『개화기 가사의 연구사적 검토』, 『18세기에서 20세기 초 한국시가사의 구도』, 소명, 1998.
- 7) 경제소제가사는 《신보》 집필진이 경제와 관련한 분야의 민족자강, 개혁론을 다룬 논설을 함축·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가사형식을 빌려 창작한 시평가사로서, 당대 경제문제를 국가와 민족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당위적 과제로 인식하여 경제를 소재로 하는 가사를 게재하기 시작했다. 이는 가사의 율문형식을 통해 경제현상 혹은 관련사건을 비교적 쉽게 메세지화 했고, 또한 그것을 통해 사실성에 기초한 경제영역 전반의 문제점 및 극복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견할 것이다. 더불어 이는 그간 숙고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근대전환기 경제담론을 구성하는 ‘베버’적 가치

주지하다시피 1898년 12월26일 만민공동회의 해산은 대한제국을 일대 ‘계몽의 부재’로 내모는 단초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 공동회의 해산직후 1899년부터 1904년까지의 시간은 연이은 정변음모와 테러 등으로 인한 전제 군주적 통치체제가 견고해져갔고 더불어 계몽에의 열정은 꺾목할 정도로 줄어들었다.⁸⁾

이러한 침체된 시류 속에서 을사보호조약을 계기로 1910년 8월 29일 조선총독부가 설치되기까지의 약 5년간, 이른바 ‘계몽의 공백’을 돌파하기 위한 부단한 논의와 노력이 이어지게 된다. 그 일환으로 각종 인쇄매체⁹⁾들이 간행되면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대변하기 시작했고, 그 정점은 《대한매일신보》(1904. 7. 18 창간)가 담당했다.

특히 《신보》논설은 근대전환기의 경제영역에 대해 다양한 분석과 방안을 객관적이며 효과적으로 내놓고 있다. 즉 당시 경제상황을 민족·국가적 차원이라는 거시적 범주에서 다룸으로서 하나의 경제담론을 구성해 나간다. 논설은 경제를 “국민의 죽고 사는 기관¹⁰⁾으로 간주하며 국민 혹은 국가 생존의 여부가 경제에 달려있음에 주목한다. 따라서 타율적 시류 속에 직면한 1900년대의 경제제반문제와 관련한 적극적 모색과

8) 도면희, 「정치사적 측면에서 본 대한제국의 역사적 성격」, 『역사와 현실』19, 역사비평사, 1996, 27면 이하.

9) 《대한매일신보》를 위시하여 《대한민보》, 《만세보》 등의 신문과 《태극학보》, 《대한홍학보》, 《서우》 등 각종 학술지들이 상당수 간행되면서 독자들의 소리를 대변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혼탁한 당시의 위기상황을 타개할 여러 대안을 모색했던 것이다.

10) 「논설」, 《대한매일신보》, 1909. 1. 6.

대응은 긴급했으며, 논설을 통한 국민과의 공유는 당시의 보다 숙고된 경제 담론을 형성해 나가게 된다.

다음의 당시 신보 논설을 통해 나타난 대강의 문제의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군이여 지금 한국의 권리가 뉘손에 있는가 금광 은광이 도쳐 나열
흐였스나 그 영업하는자는 모다 외국인이고 고기잡는 어선이 바다에 총
총흐였스나 그 영업하는자는 모다 외국인이며 그 외에도 상업공업이며
관리와 로동자들까지 사소한 영업이라도 모다 외국인의 손으로 드러가
거늘 한국에 데일싱명되는 농업근본의 던답과 몸소두는 가옥까지 외국
사람에게 모다 내여주면 제군은 장춧 무엇을먹고 살며 어디가서 거처코
저흐는가¹⁾

논설은 생계의 원천인 각종 산업과 자본을 외국인이 소유하는 현실에
대해 개탄하고 있다. 외국인에 의한 현장에서의 내몰림은 고스란히 그
이윤 상실과 생계박탈로 연계된다는 것이다. 결국 위 논설은 이러한 타
율적 권력이 작동 된 반수탈의 현실을 타개하고 아울러 절명의 생계확
보를 위한 실업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모순된 분배가 자
행 된 불합리한 경제구조의 실상의 한 단면인 것이다.

[일] 관리: 각부 각청의 관직, 지방관, 경찰관, 각 공립·관립학교의
직원도 모두 외국인으로 월급, 수당금, 가택 세금 등 각종 봉급
이 모두 한국인의 손에서 나옴

[이] 상공: 한국에 거류하는 외국인이 상공업을 차지함

[삼] 식산의 퇴폐: 외국 경제계의 공격을 당하여 이전 식산은 점점
쇠하고 새 식산은 발달치 못함

[오] 물가의 현격함: 수입품의 가격은 싸고 본국소산의 가격은 비싸거
나, 수입품과 본국소산의 통상에서 부등가 교환이 성립됨
이외에도 화폐의 빠져나가는 것과 업을일코 노는빚성이 점점만

11) 《대한매일신보》, <어디가서 살너고>, 1909. 4. 16일자 논설

하가는 각종근인을 이로 미겨치못흐노라¹²⁾

제시된 논설은 당시 경제 상황에 대한 문제를 여러 방면에서 다루고 있다. 즉 몇 가지의 사례 가운데 가장 중점이 되는 문제로, 외국인의 부축적의 원천이 한국인의 소득에서 기인함과 ‘화폐의 빠져나가는 것’, ‘노는벽성이 점점만하가는 각종근인’에서 발견되듯 사치와 낭비, 그리고 자본형성과 밀접한 노동에 불참하는 백성의 증가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문면에도 나타난 바, 당시 사치와 낭비를 일삼는 불온건한 소비활동의 행태와 근면의 태도 및 노동에의 가치에 대한 계도되지 못한 의식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핀 두 논설은 근대전환기의 경제제반과 관련한 실상과 문제를 잘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모순된 분배구조가 낳은 불합리성, 불건전한 소비행태, 그리고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부재로 정리될 수 있다. 이러한 당시의 문제점에 기인한 신보 집필진의 경제에 대한 분석과 해석은 대안적 차원에서 새로운 경제담론에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본 논문이 주목하는 방법론적 토대로서의 베버의 논리, 즉 그가 표방하는 사상일 것이다.

베버는 초기 자본주의 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정신 혹은 관념적인 요인의 작용력과 결정력을 실증적으로 해명해 냈으로써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사고양식을 정면에서 배격¹³⁾하였다. 즉 정신적 요인이 근대 자

12) 《대한매일신보》, <경제의 공황은 근인(속)>, 1909. 4. 8일자 논설.

13) 베버는 역사 발전에 있어서 물질적 조건이나 계급투쟁, 그리고 계급의 이해관심들이 중요한 변수이자 요인이라는 마르크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자본주의 발생, 성격, 파멸에 관한 이론에 관하여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다시 말해 베버는 당시 만연했던 유물론적 해석과 관점에 있어서 종교가 단순히 하부경제조건을 반영하는 결과일 뿐이지, 어떠한 원인적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는 그의 해석에 반대한다. 권세광, 「Max Weber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연구 : 개념적 이해를 통한 종교와 사회변동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서울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12면.

본주의 사회 형성에 맹아로 작용했음¹⁴⁾을 역설한다. 이러한 베버의 입장은 일반인들의 상식에 도전한다. 다시 말해 근대 자본주의 정신의 소산을 프로테스탄트의 정신, 특히 칼빈주의¹⁵⁾에서 찾았고 이는 근면·성실·금욕·절약·경건이라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에 준거한 직업관과 생활 양태에서 창출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근대 시민 계층은 종교적 성실성과 근면성을 가지고 재화를 획득했으며 종교적 금욕으로 불온건한 소비를 억제함으로써 자본을 축적하였다는 것이다. 요컨대 베버의 논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개인주의적인 경제활동이 엄격한 계산적 기초 위에서 합리화되고 경제적 성공을 향한 예측과 조심스러움을 지향하는 원리¹⁶⁾, 즉 경제적 합리주의¹⁷⁾로서 이는

14) 경제활동을 가동하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의 그 어떤 정신이 자본주의 정신과 밀접한 상관성에 놓여 있음에 주목하는데, 이 가설의 두 핵심으로서 하나는 자본주의 정신이란 무엇이며, 다른 하나는 그 자본주의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두 개의 물음으로 요약될 수 있다. Kemper Fullerton, "Calvinism and Capitalism," *the Harvard Theological Review* XXI (1928), p.164.

15) 칼빈(Jean Calvin 1509-1564)의 근본사상은 종교개혁자 루터와 마찬가지로 성서를 최고의 권위로 하는 성서주의이다. 칼빈주의 교리의 최대 특색은 **예정설**인데, 이는 이미 신으로부터 한 개인의 운명은 예정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욕망의 발로로서 직업개념이 구체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게 되고 즉 신에게 부여받은 직업(소명)을 최선을 다해 수행함으로써 현세적인 직업 활동에서 성공하는 것이 구원의 외적 표시라고 믿게 된다. 이른바 **직업소명의식**으로 대변될 수 있으며 이는 금욕과 절제된 생활로 연계되면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이념형적 특징을 구성**하게 된다. 베버는 이 독특한 신학적 교리가 근대 자본주의 생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한다. Weber, *op. cit.*, p.87.

16) *Ibid.*, p.76.

17) 베버는 서구에서 나타난 근대 자본주의의 영리획득은 단순한 탐욕이나 획득에 대한 심리적 본능과도 다르며 아울러 그 방법이 그러한 욕망 추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욕망의 억제 또는, 욕구의 합리적 조절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것이 합리성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최문환, 『막스 베버 研究』, 삼영사, 1997, 21면. 따라서 "경제적 합리주의는 돈을 벌기 위한 모든 합리적 활동을 지시하는 것이며 이 이념은 새로운 기업경영의 생활방식에 윤리적 기초와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강휘원 홍성국, 앞의 글, 123면.

합리성과 관련되어 있는 ‘근대 자본주의 정신’의 핵심이다. 또한 기업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자본주의 정신 및 발달에 중요한 근간이 되는 세상적 금욕주의¹⁸⁾, 그리고 자본주의 정신의 세 번째 구성요소로 기능하며 자본주의에 대한 베버의 이해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의 핵심주제인 직업소명의식¹⁹⁾이 이상에 해당된다.

바로 이러한 베버의 이해는 앞서 살폈던 근대전환기 경제영역에서 촉발된 여러 문제의식과 본질적으로 맞닿으면서 새로운 근대적 담론을 구성해 낸다. 그러한 가능성과 혐의는 다음의 각도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것은, 먼저 불합리한 분배구조에서 시작 된 의식의 저항은 결국 합리적 경제구조에의 정립을 요청하는 것과 상통하며 이는 전환기적 시류 속에서 찾아진 자본주의 정신의 맹아라 할 수 있다. 또한 사치와 낭비가 통제되지 못한 불건전한 소비행태에 대한 고발은 윤리적 자질이 요구되는 금욕주의적 가치와의 연계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노동의식의 후진성에서 비롯된 노동시장의 모순 및 경계는 ‘소명’을 담당하며 근대적 자아의 태동²⁰⁾을 격려하는 직업소명의식과 상보된다. 아울러 이러

18) 초기 프로테스탄티즘의 성도들은 금욕적·반영리적 경향이 매우 강하였다. 이러한 금욕주의는 도덕적·경제적 파탄이라는 국면에 함몰되지 않도록 경건한 태도 및 윤리적 자질을 요구했다. 나아가 프로테스탄티즘의 금욕 윤리는 소생산 자층을 내면적으로 고무하여 그들의 자본이 사업투기에 사용되지 않게 하고 발전적인 산업 경영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견인하였다.

19) 직업을 뜻하는 독일어의 Beruf, 영어의 Calling이라는 단어에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즉 직업은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인간은 여기에 순응해야 한다. 더불어 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그가 부여한 소명(직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개인에게 주어진 노동에 대해 신의 소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가치 높은 행위라는 의미가 부여된다. 결국 “그 자체 목적이며 소명으로서 노동의 개념”이라는 베버의 지적처럼 프로테스탄티즘의 직업관 역시 자본주의 정신을 형성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능했다고 하겠다. Weber, *op. cit.*, p.63.

20) 근대적 자아의 태동의 근간이 되는 소명의 인간관은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의 가장 강한 주제로서 베버는 이를 주관적 가치와 객관적 합리성과의 일종의 변증법적 도식에 의한 결과 및 그 산물로 규정한다. 김성호, 「주객의 저편 : 막스 베

한 근대 경제담론을 구성하는 소위 ‘베버’적 가치는 주지하다시피 관념적 요인, 다시 말해 프로테스탄티즘의 특별한 윤리가 기저에 작동한다. 따라서 이러한 필연적 상관관계가 담보되는 논증적 해석차원에서, 적극적인 기독교 수용 태도 및 그 가치를 반영했던 《신보》와 산물인 경제분야 시평가사를 통한 고찰은 담론전환의 국면 속에서 논의의 근거로 적절할 것이다.

그렇다면 초기 자본주의 사회변동의 인자를 특별한 정신으로 해석했던 베버의 이해가 구체적으로 우리근대전환기에 어떠한 양상으로 담론화 되어 반영되었는가를 이어지는 장에서 실제 자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Ⅲ. 경제소재가사에 반영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에 따른 자본주의 정신

1. 분배의 모순적 대안으로서의 경제적 합리주의

앞서 언급한대로, 본 장에서는 근대전환기의 경제영역에 걸친 제반문제들에 관해 베버가 지적하고 규명하는 세 가지의 방법론적 국면에 관심을 두되, 먼저 불합리한 분배구조의 대안으로서 요청되는 ‘경제적 합리주의’ 정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증·구현되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논의를 위한 자료²¹⁾는 《신보》집필진이 논설에 율격을 부여하여 창작한 가사형식의 경제소재 시평가사가 이에 해당되며, 다음 제시된 사

버에게 있어서 신념과 책임의 문제], 『한국정치학회보』37, 2010, 174면.

21) 본 논문의 연구텍스트는 《신보》의 디지털 복원 원문을 대상으로 하며 재료의 제목은 국한문판 가사의 제목을 수용하기로 한다. 본 디지털 복원 원문은 2012년 9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서울대학교 및 국립고궁박물관이 고신문 DB구축을 위한 협약 체결 후 2013년 2월에 디지털 복원을 완료한 바 있다.

례를 통해 살펴보자.

(가) 문전옥토 도흔뱃헤 기장만히 갈엇다가
 소주약주 비저내여 독과통에 칩위눅코
 주상싱애 햏여보세 여보시게 그말마소
 주세법이 실시라네 주상싱애 햏량이면
 세물기로 판이나리 어리석다 즈네말도
 독장스의 구구로세

(〈瓮裏九九〉, 1909년 5월 16일)

(나) 각디방에 상민들은 시장세를 반디햏여
 상업식지 첼폐햏고 경찰서를 습격햏야
 천명빅명 무리지어 곳곳마다 소요햏니
 금융고갈 이시디에 각식상업 쇠잔햏여
 몇푼몇량 엇더리도 호구지척 묘연햏디
 주초스세니 가옥세니 부가스세니 시장세니
 가진각식 더잡세가 층싱텨출 햏고보니
 가련홀스 더동포는 무엇먹고 사잔말가

(〈시스평론〉, 1910년 1월 22일)

앞선 자료는 주세를 (나)는 주초세, 부가세, 가옥세 등 이른바 부당한 잡세에 관한 실상을 고발하고 있다. 이는 일제의 강압적 세법 운용에 의한 소득의 왜곡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당시 탁지부의 세금 과세율과 관련한 공시에 의하면, 주세의 경우 도소매의 구별 없이 술은 5원씩, 담배는 1년에 두 번 2원씩 징수하였다.²²⁾ 부가세는 지세에 대한 것으로 본세의 30/100 이하로 정하여 이를 기록하고 있다.²³⁾ 이러한 잡세의 무리한 징수는 생계위협은 물론이고 그로인한 경제제반활동에 대한 위축을

22) 『統監府文書』제6권, 憲機 제1514호, 1909. 7. 31, 「平壤地方住民들의 家屋稅·煙草稅·酒稅 賦課稅率 是正要求 件」.

23) 《대한매일신보》, <지세와부가세마련>, 1909. 6. 29. 잡보란.

야기한다. 따라서 소득 수탈의 기획으로서의 과도한 세금징수는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득이 거슬러 반민세력에게 흘러가는, 명백한 분배구조의 모순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는 당시의 불합리한 경제구조의 실상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베버에 의하면, 역으로 경제적 합리주의에 바탕한 실천 의지에의 외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베버는 그의 논문에서 일반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 쉬운 이윤의 극대화, 화폐 취득,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노동착취는 실제 자본주의 발달과 무관하다고 본다. 그는 자본주의 정신이 자본주의적 발전에 앞서 존재했다는 사실²⁴⁾과 소유욕, 금전욕, 비합법적인 이익추구는 중국의 관리, 고대 로마귀족, 나폴리의 마부나 선원 그리고 남부 유럽과 아시아 여러 나라의 수공업자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며 이는 부르주아적·자본주의적 발전이 뒤처지는 나라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특징²⁵⁾임에 주목하여 위 명제에 답한다. 물론 이윤추구나 화폐취득 그 자체가 자본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즉 개인이 그의 기업에 있어 합법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방법으로 화폐를 취득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곧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자본주의 정신의 맹아이자 이를 고양시키는 합리주의적 태도, 즉 근대 경제의 기본 동기로서의 경제적 합리주의는 자본주의의 발달²⁶⁾에 배태적 요소이자 근간임을 강조한다.

결국 위 두 자료에서 인지된 소득 수탈의 한 양상으로서의 관례적 세금징수는 이윤추구에 집착한 실질적 노동착취에 다름없다. 또한 수탈은 분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분배구조의 모순 및 도

24) Max Weber,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박성수 역, 문예출판사, 1996, 24면.

25) 위 책, 25-26면.

26) 자본주의적 영리입각의 특수한 서구적 형태는 서구합리주의의 표현으로 파악한 것이 베버의 자본주의 이론의 핵심적 내용이다. 그래서 베버의 자본주의 개념은 특별히 이윤기회에 대해 합리적으로 정향해 있는 사회경제의 조직형태에 사용되는 개념이다. 박광작, 「막스베버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일 평가」, 『經濟論叢』 21, 2000, 65면.

덕성이 상실된 소유권자의 경영태도는 비단 합리성을 원칙으로 하는 시장메커니즘의 소용, 즉 자본주의 정신의 상실을 자청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고발은 역으로 합리적 원가 계산에 바탕 한 근대산업경영으로서의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한 경제의식의 외상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분배의 모순이 지적되는 좀 더 다른 양상에서의 국면을 보도록 한다.

- 산곡간을 도라드니
 울울창창 더슈목은 한인습림 이아닌가
 표목박고 측량통에 식목권이 간딤업다
 오는우양 물어내고 썩는독과 금희가며
 진심진력 기른송추 일쥬허스 되단말가
 산쥬들의 눈물이오

- 히변으로 도라드니
 호호망망 더포구는 한인어귀 이아닌가
 외인청원 인허통에 어업권이 간딤업다
 낙시그물 것어지고 궁촌으로 드러간들
 늙은부모 쥬린쳐즈 무엇으로 구제하나
 어부들의 눈물일세

(〈地方觀覽〉, 1909년 6월 19일)

위 작품은 수탈의 한 단면인 소득왜곡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일제의 각종 자원수탈정책의 기획으로 삼림 및 어기에서 산출되는 한정된 재화에 대한 불합리한 분배 및 모순된 법적 근거를 통해 수탈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일제는 당시 자원분배문제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재분배의 유통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그 폭리를 취하고 있다. 더불어 삼림이나 어기의 분배문제는 본질적으로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는 곧 또 다른 소득수탈의 국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제의 권력이 작동된 불합리한 자원 배분의 수단으로서의 자원탈취방안에 관한 행

각은 당시 「대한시설강령」과 「재무 경영에 관한 사항에 관해 별지 각서」²⁷⁾에 잘 나타나 있다. 이로써 모순되고 불합리한 분배구조에 따른 자원수탈은 모국민이 당면한 소득왜곡의 현재성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앞서 논한 바, 합리적인 경제태도로부터의 일탈, 그리고 동시에 그에 대한 정립이 기저에 고발·요청되고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이해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 특히 쾰바르트가 유효적절하게 논했다 — **근대 경제의 기본 동기는 「경제적 합리주의」라고 표현된다.** 이 말이 생산과정을 과학적 관점 아래서 분화시킴으로써 자연적으로 주어진 인간의 「유기체적」한계에서 **생산과정을 해방시킨 노동생산성의 확대**를 뜻한다면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이 합리화 과정은 분명히 근대시민사회의 「생활의 이상」중 중요한 부분을 조건 짓는다. 즉 인간의 **물질적 재화의 공급을 합리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작업을 「자본주의 정신」의 대표자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생애에 주어진 노동에 방향을 제시해 주는 목적이라고 생각했다. (중략) **엄밀한 「회계적」계산의 토대 위에서 합리화되고 계획적이고 냉정하게 추구된 경제적 성공을 지향한다는 점은 자본주의 사경제의 기본 특성** 중 하나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자본주의 정신」의 발달은 합리주의의 전체적 발전의 부분현상으로 간단히 이해될 수 있고 또 궁극적인 삶의 문제에 대한 합리주의적 원리의 입장에서 도출되어야 하는 듯이 보인다. (중략) 그러므로 우리가 탐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자본주의 문화의 특징적 구성요소 중 하나였고, 지금도 그러한 요소인 그 「직업」사상과 — 앞서 말했듯이 순수한 행복주의적인 개인적 이해관계에서 보면 그토록 불합리한 — **직업노동에의 헌신을 낳은 구체적인 「합리적」사고와 삶의 형식이 어떤 중**

27) 『日本外交文書』 제37권 1책, 390; 『駐韓日本公使館記録』 제24권, 機密送 제51호, 1904년 7월 8일, 주한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林 公使) → 외무대신 고무라 주타로(小村 大臣), 「日本政府の對韓施政方針 訓令 示達 件」, 『駐韓日本公使館記録』 제22권, 機密送 제4호, 1905년 3월 14일, 외무대신 고무라 주타로(外務大臣 男爵 小村壽太郎) → 경성 주재 재정고문 메가타 다네타로(在京 財務顧問 目賀田種太郎), 「韓國財政ニ關スル件」.

류의 것인가 하는 점이다.”²⁸⁾

따라서 베버는 근대자본주의의 화폐획득행위는 단순한 욕망이나 이윤 획득에의 심리적 본능과도 다른, 욕구의 합리적 조절에 기반 한다고 본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합리성이란 주제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또한 근대 자본주의의 특징이 합리적 혹은 시민적 자본주의의 특질로 형성되었으며 아울러 투기적 자본주의와는 구별됨을 밝혀둔다. 요컨대 베버는 근대자본주의 성립의 일반적인 전제를 앞선 합리성에 기인한 것으로 인식한다.²⁹⁾

결국 인용문에서의 베버의 이해와 앞선 논의는 이하 소론을 구성한다. 즉 자원수탈의 폐단이 가중시킨 소득의 왜곡현상은 비단 물질적 재화의 공급이 순기능화 되지 못하고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배분됨으로써 노동에의 방향성 상실과 그 작금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위 베버의 지적처럼, ‘회계적 계산의 토대 위에서 합리화되고 계획적인 운용의 온전한 작동이 아닌, 논의에서의 ‘투기적 자본주의’의 한 양태로 귀속·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합법적 권력의 작용아래 주체자로서 노동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 추구하고 어떠한 바람직한 형식의 암중모색적 갈등과 고발은 비단 경제적 합리주의의 형질의 반영이자 그 의식이 요청된 외상이라 하겠다.

요컨대 본 절에서 살핀 바, 소득수탈의 일환으로서 과중한 세법신설의 운용을 통한 관례적 세금징수, 자원수탈정책의 기획의 산물인 불공정한 자원분배 등은 주지하다시피 모순된 분배구조 및 불합리한 경제구조의 실상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즉 이윤추구를 위한 실질적 노동착취와 폭리취득을 위한 재분배의 원천봉쇄 등은 자본주의 정신의 맹아인 합리적 경제태도의 부재를 입증하며 이에 대한 화자의 문제의식과 고발은 동시에 근대산업

28) 박성수 역, 앞의 책, 42-44면.

29) 최문환, 앞의 책, 22면.

경영정신에 입각한 합리적 경제의식의 반영 및 반증이라 할 수 있다.

2. 불온건한 소비활동경계에 내재된 ‘금욕주의’ 정신

본 절에서는 앞서 밝혔듯, 근대 전환기적 국면 속에서 발생했던 여러 경제문제들에 관해 베버사상의 핵심인 ‘금욕주의’에 대한 그의 이해가 당시 불건전한 소비활동에 대한 경계 속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반영되었는지 살피기로 한다. 또한 전절에서 고찰한 경제적 합리주의가 근간이 되는 자본주의 정신, 즉 이러한 정신을 토대로 구성되는 자본주의를 견인하는 밑바탕에 금욕주의의 핵심적 윤리가 내재되어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본국소산 만껏마는 외국옷감 도타흐야
공샤극치 홀양으로 비싼갑을 주면서도
타인의게 말홀제는 리된다고 권면하니
그경제도 잘못된일

(〈經濟誤解〉, 1908년 8월 30일)

- 외국물품 몸에감아 룡라금슈 찬란하다
홍중계척 업슬망당 목전변화 즐겁도다
무식자는 불위히도 유식자는 춤빚호니
샤치병이 난치로다

(〈痼疾難治〉, 1908년 4월 12일)

- 데스
발달 무엇인가 부모쳐즈 굶드리도
돈량이나 싱기면은 의복음식 샤치홀제
 룡라금슈 모직으로 찬란하게 호스호고
명월관과 혜천당에 의례등너 츠져가서
각식료리 판을쓰니 이런인종 쏘잇는가

(〈是何人種〉, 1909년 2월 25일)

당시 기승이었던 사치의 다양한 행태는 여러 텍스트를 통해 발견되고 있다. 바로 위 사례들은 마치 관행처럼 빈번했던 사치 유형의 두 극단을 보여준다. 먼저 선두자료에서는 값비싼 외국 옷의 구매자가 타인에게까지 그 구매를 권면하는 모습에 대해 경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고질난치>에서의 외국 옷으로 치장한 작중인물이 그것에 도취되어 즐기는 모습에 대한 직설적 비판과 상보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치풍조의 또 다른 유형인 유흥공간에서의 사치 행각에 대해 다음 <시하인종>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즉 부모와 처자에 대한 부양자로서의 책임을 상실한 채 소유한 자본으로 유흥공간에서 방탕한 사치를 일삼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이는 당시 여러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매우 취약해진 경제적 형편을 고려할 때 과도한 소비욕망이 부추긴 부정적 사치행위³⁰⁾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크게 두 유형으로서의 세 자료는 공통적으로 과소비가 동반된 사치행태로, 불건전한 소비풍조가 고발되어 있다. 이는 국가 경제의 파탄을 초래할 사치 및 그 욕구에 대해 자제와 금욕하기를 당부·촉구하는 것으로 베버의 다음과 같은 이해 속에서 지적될 수 있다.

베버에 의하면, 자본주의적 생활방식은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의 철저한 윤리적 토대를 바탕으로 구성되어왔고³¹⁾ 이 생활방식이 자본주의의 발전에 대해 갖는 중요성은 명백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 현세적인 프로테스탄트의 금욕은 전력을 다해 재산 낭비적 향락에 반대해 왔고, 소비, 특별히 사치품의 소비를 봉쇄하는 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베버의 생각은 이하를 통해 부연될 수 있는데,

30) <한인패부(韓人佩符)>(1909년 2월 2일)는 한국인의 사치를 “망국괴초 사치”라고 규정하면서 당시 극도의 경제적 난국 속에서 자행됐던 사치풍조에 대해 국가존속의 큰 위기적 행태로 간주하고 있다.

31) 여기에 대해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을 직접 연결한 것은 아니다. 대신에 이 둘을 매개하기 위해 ‘현세적 금욕주의’라는 윤리적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증명한다. 권규식, 『종교의 사회학적 이해』, 이문출판사, 1997, 43-44면.

자본주의 기업가의 이념형은 의식적인 권력의 향유는 물론 허례허식과 불필요한 지출을 피하며, 그가 받는 사회적인식의 외면적 표식에 의해 부끄러워한다. 즉 삶에 대한 그의 방식은 어떤 금욕적 경향으로 구분된다.³²⁾

따라서, 금융주의는 주체자의 자제심에 대한 냉정한 태도의 일관성을 요청하고 아울러 도덕적·경제적 파탄에 함몰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경건한 성격에 대한 요구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를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엄격한 윤리적 자질이 필요했고, 연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원조해 준 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였던 것이다.

결국 근대전환기에 발생한 두 양상의 과소비적 사치행태는 위 지적처럼 재산 낭비적 향락의 전면이며 동시에 사회공동체윤리를 의식하지 않은 페르소나³³⁾의 상실을 보여준다. 또한 책임과 도덕성을 상실한 유흥공간에서의 파탄적 소비행각은 단호한 윤리적 자질과 자제력을 수반하는 냉철한 태도가 구비되지 못한 병폐의 온상인 것이다. 요컨대 이러한 사회문제적인 현실에 대한 의식화된 고발은 비단 철저한 윤리적 토대를 통한 생활방식의 개선·신장을 갈구함과 동시에 베버가 이해하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로서의 금욕적 가치가 내재된 작동의 실상인 것이다.

그렇다면 좀 더 다른 관점에서의 과소비적 행태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다음의 자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 상업제공 드러보소
간난하고 부요함이 저헝기에 잇다느디

32) Weber, *op. cit.*, p.91.

33) 주지하다시피, '페르소나'(persona)란 사회적 역할에 따라 명명되는 '으로서의 나'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가 분화되고 그에 따른 개별주체자의 역할의 다양성 인해 개인적 페르소나의 숫자는 증가하게 된다. 즉 추하고 결핍된 부정적 범주 내에서의 '가면'의 외연이 아닌, 개인의 본질적 정체성에 대한 추구하고 동시에 공동체욕망 실현에의 의지적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상덤흐나 설시흐면 거처의식 사치타가
즈본식지 다업스니 제가제쌈 치는게오

(〈昌言壹束〉, 1908년 8월 23일)

- 부인에게 이병들면
치산범절 불게흐고 낮잠자기 담비질과
음식장스 드러오면 쌀퍼주고 사먹기로
일을습아 지너가니 집안치괘 가외로다

(〈病中の 未疾〉, 1908년 10월 8일)

위의 두 자료는 각각 앞선 텍스트에 등장하는 행위자와 다른, 각각 상인과 부녀자에 대한 과소비적 사치를 경계하고 있다. 즉 당시 난국 속에서의 사치행태가 다양한 계층에서 발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두자료에서는 ‘거처의식 사치타가’를 통해 상인의 특별한 사치 행태를 보여주는데, 이는 과시욕에 집착된 올바르지 못한 경영태도와 그로 인한 자본 상실이라는 절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하 자료에는 부녀자가 자신의 책무는 망각한 채, 사치적인 행위, 즉 ‘음식장스 드러오면 쌀퍼주고 사먹기’로 가산을 탕진함으로써 빚어진 부정적 결과가 잘 나타나 있다. 결국 두 사례는 주체자의 입장과 상황만 상이할 뿐 앞서 밝혔듯, 자제력이 불식³⁴⁾된 불건전한 소비행태의 일단으로 규정될 수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일정 수준이상의 윤리적 자질이 내재되지 못한 행위자, 즉 그러한 사치행각에 몰두된 행위자에 대한 충고는 상당의 금욕적 태도로의 전환을 요청하는 것과 합의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이해는 다음에서 인지될 수 있다.

34)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행위자의 태도를 비판할 때 그것의 자발적·비자발적 양태여부는 합리적 선택 혹은 숙고의 과정에 세심한 영향을 끼치며 그래서 그것이 윤리적 책임의 귀속 여부를 결정하고 아울러 ‘자제력 부재’ 즉 그것의 상실로 인한 비윤리적 태도라 규정할 수 있는 중요한 방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trans. W.D.Ross, Oxford, Clarendon Press, 1908. 참조.

“실질적으로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재산을 갖고 휴식하는 것, 부를 향락하여 태만과 정욕을 낳고 특히 ‘거룩한 삶’에 대한 추구에서 이탈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재산이 쇠약시 된 것은 오직 그것이 이러한 안주의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시간 낭비는 모든 죄중에 최고의 중죄이다. 인생의 기간은 각자의 부르심을 ‘확인하기’에는 너무나 짧고 소중하다. 사교, ‘무익한 잡담’, 사치 등을 통한 시간 낭비 그리고 건강에 필요한 만큼 —6시간에서 최고 8시간—을 상회하는 수면 시간에 의한 낭비는 도덕적으로 절대적인 비난을 받는다.”³⁵⁾

따라서 이러한 특성은 귀속된 직업 활동내지 일상적 현재에서 얻은 화폐를 현세적인 안락이나 사치를 위해서 낭비하지 않고 금욕과 절제를 통한 소비 억제에의 태도로서 ‘자본주의적 이념형’을 구성하는 동치개념으로 기능한다.

결국 두 계층의 독립적 정황 속에서의 대동소이한 사치행위는 먼저 부를 이용한 태만 및 정욕추구의 지속성에 집착된 부정적 결과를 보여 준다. 또한 무익한 소일과 시간낭비가 동반된 사치에 몰입하여 현세적 안락에 도취돼버린 행위자에 대해 도덕적 비난의 비판을 청구하게 된다. 이는 윤리적 자질을 구비하지 못한 도태된 삶의 태도에 대한 지적임과 동시에 인용했듯 금욕과 절제로의 전환을 당부하는 근대전환기적 이념형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종교적 변수로서의 금욕, 혹은 금욕적 태도에 관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는 당면한 근대전환기의 과소비적 사치를 중심으로 한 경제영역문제에 본질적으로 수용되면서, 당대 계층의 경제존속을 촉진하고 긍정적인 관점에서의 세속적 정향의 확산³⁶⁾을 추동하는 국면전

35) 박성수 역, 앞의 책, 114면.

36) 베버는 그의 연구에서 종교적 관념과 믿음체계가 실증적 합리화 과정을 통하여 사회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입증해 보였다. 즉 프로테스탄티즘 금욕윤리에 근거를 둔 새로운 소명 의식은 세속적 정향의 확산에 대한 기존의 전통적인 방해물들을 제거하였고 결과적으로 근대 자본주의 형성의 급격한 확산을 촉진

환의 기능을 담당했다.

3. 근면, 노동에의 지향을 계도하는 직업 소명의식

자본주의 정신의 세 번째 구성요소로서의 ‘직업 소명의식’, 즉 프로테스탄티즘의 직업의식은 근대자본주의 정신의 형성에 있어 강력한 영향력을 구사했다. 이 개념은 자본주의에 대한 베버의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면서 주관적 가치와 객관적 합리성과의 조우를 통한 변증법적 결과의 산물로 규정될 수 있다.³⁷⁾ 그렇다면 우리 근대 전환기의 경제적 가치형성에 있어 어떠한 양상으로 반영되면서 노동의식을 계도하였는지 실례를 들어 검토하기로 한다.

· 정당계의 관리들아
 빈부강약 물론하고 로동으로 심활이라
 로동자가 만호면은 그나라가 부강하고
 로동자가 적으면은 그나라가 쇠패커늘
 제군들도 말홀진디 로동주인 이아닌가
 아무도록 분발하야 국가부강 하여보소
 (<又一勸告>, 1909년 6월 15일)

· 기화바름 흥번부니 희먹을일 전혀업다
 고용질은 창피하고 막벌이는 슈치로다
 공론업는 이세상에 벼슬츄레 내게올가
 곰싱원의 원망이오
 (<浮世怨恨>, 1908년 1월 28일)

하며 과거와는 현저히 다른 새로운 문화적 상황을 창조하는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밝힌다. S. N. Eisenstadt, (ed.), *The protestant Ethics and Modernization: A Comparative View*, (New York: Basic Books, 1968).
 37) 김성호, 앞의 글, 174면.

《신보》는 당시 생산요소의 취약성에 대한 원인 및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문제를 거론한다. 먼저 위의 <우일권고>는 노동력 증강에 대한 시급함을 성토했고 있다. 이는 국가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자 보유가 담보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런 와중에 주인의식이 내재된 노동참여가 절실함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의 <부세원한>의 경우 역시 동일한 맥락 속에서 노동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즉 과거 인습인 신분제도의 철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천시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허례적 태도를 비판하며 노동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두 사례는 모두 당대 취약해진 생산구조와 관련한 직결적 원인으로 노동천대의식 및 불참이 경계되어 있는데 이는 그 기저에 근면·자주적 태도가 바탕된 노동력 동원 캠페인으로서의 계도가 수행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에서 모색될 수 있다.

베버에 의하면, 소명개념은 연계적으로 합리적 생활태도 및 금욕생활을 견인했으며 이는 금욕적 직업윤리에 바탕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금욕적 직업윤리에서 자본주의 정신이 발생하여 이른바 시민적 직업윤리로 발전되었고, 이후 근대 자본주의 윤리를 구성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소명의식이 발로된 노동에의 충실함은 지속·체계적 속성을 가지면서 그러한 노력으로 경제적 확장을 가능케 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이해했다. 이는 생산을 조직적으로 강화하는 당위적 현상으로 자본의 축적을 도모하는 동기로 작용한 것이다.³⁸⁾ 이러한 베버의 생각에 동조하는 트릴취의 경우,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칼빈주의적으로 소화되고 그래서 노동의 엄격성과 통제³⁹⁾”를 통해 얻게 되는 이윤은 결국 전근대적 탐욕에의 이윤추구와는 질적으로 다른 위상을 부여받고 이에 경제적 발전이

38) Robert W. Green, *Protestantism and Capitalism- The Weber Thesis and Its Critics* (Boston: D.C. Heath and Company, 1959) 이동하 역, 45-46면.

39) Troeltsch, Ernst, *Die Sozialshrn der chistlichen Kirchen und Gruppen*, 현영학 역, 한국신학연구소, 2003, 56-57면.

가동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상의 베버의 논의는 앞선 자료와 조우하며 논리를 구성한다. 즉 당대 위기에 처한 민족 경제공동체의 자립에 대한 희망은 절박했고 이러한 의지는 작품이라는 창구를 통해 공적 담론화되어 드러난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적 절박성에 대한 모색은 주체적 의지의 동기로서의 소명의식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결국 위의 두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노동인식전환을 통한 노동참여의 절실한 요청은 근대전환기에 직면한 위기적 국가경제상황 속에서 노동 지향을 계도하는 천직으로서의 현세적 소명의식⁴⁰⁾의 한 반영인 것이다.

이와 본질적인 관점에서 연계될 수 있는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기로 한다.

· 게으를스 더성질이

로동자를 디흐면은 천인으로 인덩히며
손톱우에 물통기며 담비물고 낮잠자기 부형지산 다파먹고
직정고갈 이시딕에 굴머죽게 되어서도 십지부동 안연히니
더기물을 엇지홀고

(〈人中棄物〉, 1909년 6월 30일)

· 부령군에 농업가는

아모도록 힘을써서 실디스업 발달코져
여러사람 합동히여 강습소를 설시히고
농업기량 흐려히고 교스고빙 혼다히니

40) 당시 프로테스탄트들을 위시하여 다양한 계층, 특히 자본주의 정신의 본래적 담당자인 소생산자층을 중심으로 자신의 직업(노동)을 신이 부여한 소명으로 받아 들였다. 이러한 소명사상은 독일어 'beruf'(영어로는 calling)에 두 가지 특징으로 집약된다. 그 하나는 신의 소명, 즉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천직'의 개념이다. 다른 하나는 세속적인 의미로 목수, 대장장이 등 '세속적 직업'을 가리킨다. 따라서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이 세속적 직업(노동)은 단순한 노동거리가 아닌, 주지한 대로 주어진 사명이자 천직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실업경륜 김헛도다

(〈시스평론〉, 1910년 2월 6일)

선두 작품은 당시 노동자의 게으름과 나태·안일에 대해 직설적인 화법과 원색적인 묘사로 경계하고 있다. 즉 역으로 노동자의 근면한 태도를 요망하고 이로 인한 위기극복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도의 외상인 것이다. 이는 당대 사회계층을 향한 노동에 대한 바람직한 의식변화를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하 자료는 개탄스런 민족경제 속에서 자본형성과 유입을 위해 노동력이라는 잠재적 역량의 수용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그러한 노동력이 공급되기 위한 노동력 증대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으로 실업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그 준비 과정을 제시하여 생산력 증강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한다. 따라서 두 작품 역시 직·간접적으로 의식변화가 선행된 노동력 공급의 현재적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소명에 입각한 노동 지향에의 계도를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은 이해를 통해 적용·논의될 수 있다.

“**세속적 직업에서의 의무이행**을 도덕적 자기증명이 가질 수 있는 최고 내용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세속적인 일상적 노동이 종교적 의미를 갖는다는 생각이 발생했고 그러한 의미의 직업개념이 최초로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직업개념에는 프로테스탄트 교파의 중심 교리가 표현되어 있다. 이 교리는 현세적 도덕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현세의 의무를 완수하는 것**이라 보았다. 이러한 **현세적 의무는 각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곧 그의 직업이 된다.**”⁴¹⁾

따라서 위의 의무로서의 삶으로 실재화 할 수밖에 없었던 근대적 자아의 도덕 심리를 재구성하는 것이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의 핵심 주제였

41) 박성수 역, 앞의 책, 46면.

던 것이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에 대한 이와 같은 인간학적 해석을 통해 이른바 소명의 인간이라는 이상형을 구성한다.⁴²⁾

결국 자료에서의 나태한 노동력 비판을 통한 근면 강조는 천직으로서의 직업소명의식이 담지 된 충실한 의무이행에의 완수를 당부하는 것과 상보된다. 아울러 이러한 의무에 관한 소명감은 노동력 증대의 중요성 및 이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영향을 주고 또 베버가 지적했듯, 이를 통해 직업의식속의 순환적 소명화가 지속·연속성을 갖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노동의 가치에 관한 인식변화에의 요청과 실질적 변화를 위한 탐색과정은 노동지향의 계도를 촉발하는 소명의식의 집약이라 하겠다.

요컨대 이상에서 살핀 바, 노동은 단순한 화폐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직업 즉 소명으로 생각하는 관념의 작동인 것이다. 그러므로 근대전환기 경제영역에서 근본적인 문제로 대두됐던 생산요소, 즉 노동공급의 취약성에 대한 고발 및 그 대안으로서의 노동력 증대방안 등은 단순한 계도적 프로그램을 넘어서게 된다. 그것은 근면이 동반된 노동의식 속의 소명의 달성화가 이루어진 결과적 산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IV. 인식전환이 갖는 가치와 의의 및 결론

본 논문은 소급된 개화기 시가문학, 특히 시평가사의 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그간 다방면에 걸친 질적·양적인 논의와 성과 속에서도 미처 탐색되지 못한 것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시도이다. 즉 종래에 왕성한 논의가 있어왔지만 보다 본질적인 사상수용의 천착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 그 문제의식화와 자연 추종되는 검토의 작업이 미진한 것으로 판단

42) 강휘원 홍성국, 앞의 글, 125면.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해명을 위해 방법론적 모색을 가하여 그 반영의 양상 등을 검증적으로 살펴나가며 우리 근대전환기의 여러 경제적 난관과 전환적 국면 속에서 발생하고 적용될 수 있었던 경제담론의 실재, 즉 자본주의 정신의 맹아와 모태적 윤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이 처한 개화기의 실상은 잔존한 기존질서의 모순, 서구충격에 대한 현실적 대응문제, 그리고 더하여 일제의 타율적 정치굴레라는 딜레마에 도취돼 있었다. 이러한 근대적 위기는 필연적으로 일국의 경제제반문제와 결부되어 상당한 타격을 맞게 했다. 이에 앞서 밝혔듯, 타 저널에 비해 기독교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신보》논설은 근대전환기 경제영역에서 속출한 제반문제와 관련하여 적극적 모색과 대응차원에서의 경제담론을 대체·구성해 나간다. 따라서 집필진은 이러한 숙고된 담론을 보다 효과적으로 송신하기 위해 방편적 차원에서 가사형식을 빌려 계몽의 절박함을 주지시킨 것이다.

그러한 일환으로 당시 불합리한 분배구조의 모순, 과소비적 사치를 통한 불건전한 소비풍조 및 노동력 공급 미비에 대한 문제들을 배버의 이해 속에서 살펴나갔다. 그것은 소득수탈의 기획으로서의 편법적 세금징수, 자원수탈정책의 산물인 불공정한 자원분배 등으로 주지하다시피 모순된 분배구조 및 불합리한 경제구조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이윤추구에 집착된 노동착취와 폭리취득을 위한 재분배의 원천봉쇄 등은 앞서 지적했듯, 자본주의 정신의 맹아인 합리적 경제태도의 부재를 입증하며 이에 대한 고발은 동시에 근대산업경영정신에 기반한 합리적 경제의식의 반영 및 반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근대전환기에 발생한 여러 양상의 사치행태에 대한 의식화된 고발은 비단 윤리적 자질이 내재되지 못한 행위자, 즉 그러한 소비행각에 몰두된 행위자에 대한 충고인 것이다. 아울러 이는 금욕적 태도에 관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이상의 경제영역문제에 본질적으로 수용되면서 금욕과 절제로의 전환을 당부하는

것과 상보된다. 그리고 노동 가치에 대한 인식전환 및 참여에의 절실한 요청은 전환기에 직면한 위기적 국가경제상황 속에서 노동 지향을 계도함과 자본주의에 대한 베버의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즉 천직으로서의 현세적 소명의식의 한 반영인 것이다.

흔히 개화기 가사와 개화가사를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하여 이를 성격상 바로 구분하지 못한 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⁴³⁾ 이와 마찬가지로 계몽기 혹은 애국계몽기로도 일컬어지는 이 시기의 가사류들에 대해 범주, 의미역, 자질 등의 선연한 구획에도 불구하고 ‘계몽’이라는 거시적 담론에 국한시킬 때 논의는 그 한계를 갖는다. 즉 전환기 당시의 치열했던 역사현실에 맞닥뜨려 강렬한 저항의지를 표출하는 저항문학이라는 위상으로부터, 무능한 정치권과 일제의 수탈행위에 대한 규탄, 그리고 민족의 여전한 습속과 폐단에 대한 질책⁴⁴⁾ 등의 소위 일률적 유형화는 동일한 담론 내부에서의 속성적 한계에 봉착하기 마련이다. 이는 전두에서 밝혔듯 국소·국한적 시야를 벗어나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을 둘 수 있으며 따라서 보다 세심한 분류화의 선행이 요구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서술목적과 이를 담은 송신매체나 저널의 여러 속성이 고려되고 이후 다루어질 텍스트의 귀속 세부분야(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대한 분류와 그에 따른 특정 관점 속에서의 분석이 가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럴 때만이 한정된 논의의 틀에서 벗어나 세심한 논의로의 진입이 가능할 것이다.

43) 김영철, 『한국 개화기 시가 연구』, 새문사, 2004, 19-20면. 이에 대해 필자는 전자는 개화기에 창작된 모든 가사를 포함하는 명칭이지만, 후자는 개화를 지향하는 제한된 부류에 해당되는 명칭으로 대별하고, 또한 개화기 가사에는 항일, 저항비판의 척사지향의 가사도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도 개화가사보다는 개화기 가사가 포괄적 명칭으로 적합할 것임을 피력한다.

44) 이에 고미숙(『근대계몽기, 그 생성과 변이의 공간에 대한 몇 가지 단상』, 『비평기계』, 소명출판, 2000)은 그간 계몽가사에 대한 연구가 지나치게 ‘애국’이라고 하는 정치적 독법에 강박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작품의 내용에 반일 혹은 반봉건의 정치적 슬로건이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가 대신, 근대적 사유방식이나 삶의 습속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에 주목해야 함을 역설한다. 고은지, 앞의 글, 5면.

따라서 이상을 통해 본 논문은 새로운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소정의 노력을 기울였고 이에 소박한 가치 내지 의의를 부여하고자 한다. 그것은 논의된 바, 사상수용의 천착에 관한 세부적 관찰이 미진한 토대 속에서 보다 본질적인 해명은 절실했고, 이를 위해 단순한 사상적 고찰을 넘어 작품의 근간으로 작동하는 모태를 정신적 측면에서 찾았다. 그 결과 그것의 구성체가 되는 윤리관 및 연계되는 자본주의 정신을 추출·발견할 수 있었고, 이에 작은 의의를 두고자 한다. 아울러 향후 사상 전개와 문학적 접합양상에 있어 이념 내지 사상이 문학으로 전입·수용되는 양상을 살필 때 특정 이데올로기나 사상적 관념물의 문학적 조탁과정⁴⁵⁾을 통한 수용·분석의 용이함이 설계된다면 보다 깊고 면밀한 논의로의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

45) 김영철, 앞의 책, 363면.

참고문헌

<국내자료>

《대한매일신보》, 한국언론진흥재단 고신문 디지털 복원 원문
(<http://www.kinds.or.kr/>)

《皇城新聞》, 한국언론진흥재단 고신문 디지털 복원 원문
(<http://www.kinds.or.kr/>)

『統監府文書』 제6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제22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단행본 및 국내논저>

권규식, 『종교의 사회학적 이해』, 이문출판사, 1997.

강준만, 『한국 근대사 산책』4, 인물과 사상사, 2007.

고미숙, 「개화가사의 연구사적 검토」, 『18세기에서 20세기 초 한국시가사의 구도』, 소명, 1998.

고미숙, 「근대계몽기, 그 생성과 변이의 공간에 대한 몇 가지 단상」, 『비평기계』, 소명, 2000.

김성호, 「주객의 저편 : 막스 베버에게 있어서 신념과 책임의 문제」, 『한국정치학회보』37, 2010, 173-196면.

김영철, 『한국 개화기 시가 연구』, 새문사, 2004.

도면희, 「정치사적 측면에서 본 대한제국의 역사적 성격」, 『역사와 현실』19, 역사비평사, 1996, 14-39면.

Max Weber,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박성수 역, 문예출판사, 1996.

- 최문환, 『막스 베버 研究』, 삼영사, 1997.
- 강희원 홍성국,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 현대적 관점에
서의 재조명」, 『사회과학연구』8, 2004, 119-133면.
- 고미숙, 「계몽시가를 통해 본 근대적 시간표상의 몇 국면 : 「학교가」와
「열(烈)가집(歌集)」(박재수 편)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22, 2003, 140-158면.
- 고은지, 「계몽가사의 문학적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 양식적 원리와 포
현기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권세광, 「Max Weber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연구 : 개념
적 이해를 통한 종교와 사회변동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서울신
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김영철, 「개화기 시가에 나타난 알레고리의 미학」, 『한국시학연구』35,
2012, 39-71면.
- 박광작, 「막스베버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일 평가」, 『經商論叢』21,
2000, 63-93면.
- 이형대, 「근대계몽기 시가장르의 존재양상과 근대적 대응 : 근대계몽기
시가사 인식의 구도와 관련하여」, 『시조학논총』32, 2010, 9-33
면.

<국외자료 및 논저>

-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trans, W.D.Ross, Oxford, Clarendon
Press, 1908.
- Kemper Fullerton, “Calvinism and Capitalism,” *the Harvard
Theological Review* XXI (1928).
- Max Weber, *The Protestant Ethics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translated by T. Parson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8).

Robert W. Green, *Protestantism and Capitalism- The Weber Thesis and Its Critics* (Boston: D.C. Heath and Company, 1959).

S. N. Eisenstadt, (ed.), *The protestant Ethics and Modernization: A Comparative View*, (New York: Basic Books, 1968).

Troeltsch, Ernst, *Die Sozialshrn der chistischen Kirchen und Gruppen*, 현영학 역, 한국신학연구소.

<Abstract>

Capitalism and Ethics Reflected on the Verse
on Contemporary Review of Economy in
《Korea Daily News》
- Based on the Methodological Argumentation of
Weber -

Kang, Dong-Wan*

Centered on the part especially of economy of verse on contemporary review along with the retroactive Korean classic poetry of transitional period of modern ages, this thesis begins with worry of undiscovered among variously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discussion and outcomes. In other words, although there were abundant discussion in the past, regarding the problem of acceptance and inquiry of more essential ideologies, the awareness of problems and follow-up reviews were not satisfactory. Therefore, for concrete discussion and explanation regarding the above, the methodological solution was added to evaluate the dual phase of reflection of the mentioned, and the existence of economic discourse that could be emerged and applied within economic hardship and transitional phase during transitional period of modern ages in Korea, or the sprout and matriarchal ethics, could be found.

As everyone knows, the crisis during transitional period of modern ages in Korea was inevitable, and connected with the national

* Korea University

problem of economic foundation, the crisis brought huge impact. Therefore, the editorial of «Daily News», which was active in accepting Christianity, replaced and formed the economic discussion from the perspective of active solution and response regarding problems of economic foundation in the transitional period of modern ages.

As a part of solution, problems regarding unhealthy consumption and incomplete supply of workforce through contemporary irony of distribution structure and extravagance were evaluated under the aspect of Weber. Along with accusation of the sweating system concentrated on benefits and exploitation of property and advanced blockade of excessive profits to prove nonexistence of rational economic attitude, or the sprout of Capitalism, it reflects and denies the rational economic mentality based on the modern industrial management aspect. Furthermore, conscientized accusation of various extravagant phase emerged in the transitional period of modern ages complements the fact that Protestantism is accepted for economic problems and is used for transition of asceticism and abstinence. The desperate request of change of recognition and participation for labor value leads labor orientation under critical economic crisis of the country and reflects secular vocation.

Key Words : Transitional Period of Modern Ages, Verse on Contemporary Review, Max Weber, Capitalism, Protestantism, Economic Rationalism, Asceticism, Sense of Occupational Vocation

《대한매일신보》 경제소재 시평가사에 반영된 자본주의 정신과 그 윤리 415

■ 논문접수 : 2014년 6월 30일

■ 심사완료 : 2014년 8월 29일

■ 게재확정 : 2014년 8월 30일